

“경제활력 회복·미래산업 육성 강력한 리더십 기대”

지역 경제계, 이재명 대통령 취임 축하 입장문 발표

상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경총 “사회갈등 통합·화합의 장”

이재명 대통령 당선 관련 지역 경제계가 입장문을 내고 빠른 경제 회복과 지역 미래산업 육성 등의 기대감을 전했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한상원)는 4일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며, 새 정부가 통합과 신뢰의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줄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광주상의는 “제21대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무엇보다 험난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가 신임 대통령과 새 정부의 지혜롭고 강력한 리더십 아래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 경제의 성장엔진인 기업들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생산활동에 전념함으로써 새 정부 5년의 성공을 위한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당부했다.

광주상의는 “광주 민·군공학 이전에 대한 정부 주도의 조속한 사업 추진과 광주 인공지능 중심도시 완성, 전남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전략적

육성 등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우리 지역이 미래 성장동력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적극 추진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광주상의는 “지역 상공인은 한마음으로 새 정부 5년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지역발전 공약들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균형발전 시대가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는 ‘새로운 대한민국 대통령께 드리는 제안’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역량 집중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 △국민 통합과 전 국민 자긍심 고취 등을 요청했다.

광주경총은 “엄중한 경제 상황과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새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와 책임이 막중하다”며 “먼저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장려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정부가 선도적으로 지원하고, 기업들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광주의 미래차·인공지능과 전남의 에너지·화학 등 지역별 특화산업을 연계하고, 군·민간

공향 통합이전과 장기적으로는 광주·전남 메가시티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 새로운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육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통합과 전 국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희망을 잃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따뜻한 리더십과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사회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 달라”며 “대통령께서 이러한 염원을 헤아려 직면한 과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욱 번영하며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연수 기자

JCIA ‘영광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본격 추진

ICT·SW 공공서비스 정보 향상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JCIA)이 주도하는 ‘영광군 건강증진형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4일 JCIA에 따르면 총 5억 1,600만 원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ICT/SW 기술을 접목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 접근이 어려운 노약자 경로당 내에서 건강관리·비대면 진료·생활정보 이용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남도, 영광군의 지원을 받은 ‘2025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초고령화가 진행 중인 영광군의 돌봄 문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스마트경로당은 경로당에 노약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건강상태를 간편하게 측정한다.

이후에는 군내 협력 병원이나 약국과 연계해 화상으로 진료나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군내 진료 가능 기관이 없는 경우 전국 단위 병원이나 약국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기기를 통해 고령자 질환에 대한 다양한 건강정보와 예방법도 함께 제공한다.

경로당에 키오스크 기반의 양방향 화상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 영광군에서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바탕으로 요가, 춤, 노래, 체조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이외에도 화상 상담 시스템을 통해 심리 상담도 비대면으로 제공하며 군정과의 회의나 소통도 영상 시스템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키오스크를 통해 균형 공지사항, 마을 소식, 날씨 정보, 농작물 시세, 긴급 재난 정보, 시니어 일자리 정보 등도 신속하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TV나 입소문에 의존했던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안내되면서 고령층의 정보 소외 문제도 함께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용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JCIA에서는 ICT/SW 기술을 접목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수요 발굴과 ICT/SW 기술 기반의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흥원은 ‘영광군 건강증진형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를 지난달 게시했다. 접수는 e나라도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5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홍승현 기자



농협전남본부와 장흥축협은 4일 육포데이를 맞아 농협하나로마트 남악점에서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했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전남농협 ‘육포 데이’ 맞아 소비촉진 운동 전개

장흥한우육포 5천개 완판

농협전남본부(본부장 이광일)와 장흥축협(조합장 김재은)은 4일 육포데이를 맞아 농협하나로마트 남악점에서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육포데이는 육(6)과 포(4)의 발음을 딴 6월 4일로, 국산 육포 소비를 촉진하고 우리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날이다.

장흥축협은 올해로 14회째 육포데이 선포식을 진행하며, 매년 국산 육포 소비 확대에 힘써 왔다.

이번 행사는 한우육포 무료시식 및 30% 할인 행사로 평소 접하기 힘든 최고 품질의 장흥한우육포를 선보이며 맛과 우수성을 알렸다. 마트

방문객을 대상으로 진행된 롯데 경품행사에서는 한우·한돈 육포 등을 증정했다.

이와 함께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해 준비된 5,000개가 완판되어 장흥한우육포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김재은 장흥축협 조합장은 “정남진장흥한우육포는 식감이 부드럽고 맛이 자극적이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강 간식인 만큼 소비자들의 많은 애용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광일 본부장은 “단순한 데이마케팅을 떠나 우리 한우로 만든 가공품을 많이 이용하면 어려운 축산농가에도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전남 축산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오비맥주 광주공장 직원들이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광주시민의 숲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오비맥주 제공

“시민 소중한 쉼터 깨끗하고 건강하게 보존”

오비맥주 광주공장, 세계 환경의 날 기념 ‘광주시민의 숲’ 정화

광주공장 임직원 20여 명 참여 환경교육·정화활동·소등행사도

오비맥주(대표 배하준) 광주공장이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최근 ‘광주시민의 숲’ 정화 활동을 전개했다고 4일 밝혔다.

오비맥주 광주공장은 6월 5일로 지정된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전남도와 한국환경공단, 수자원공사,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홍수통제소, 광주환경공단 등과 함께 광주시민의

숲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광주시민의 숲은 영산강을 따라 조성된 숲길로, 도시 속에서 시민들이 자연 생태를 학습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날 오비맥주 광주공장 임직원 20여 명은 왕복 1시간 30분 정도의 숲길을 따라 걸으며 버려진 쓰레기들을 수거했다.

오비맥주 광주공장은 광주시민의 숲 정화 활동과 함께 세계 환경의 날 행사로 임직원 환경교육과 공장 내 부지 경계선 정화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무실 소등 행사와 구내식

당 잔반 남기지 않기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 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양우천 오비맥주 광주공장장은 “광주 시민들의 소중한 자연 쉼터인 광주시민의 숲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해 이번 정화 활동에 동참했다”며 “임직원들의 환경 보호 의식을 높이고, 다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환경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오비맥주 광주공장은 매년 세계 물의 날(3월 22일) 광주 하천 수질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하천 정화 활동에 임하고 있다. 올해도 광주공장 인근 영산강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연수 기자

한전, 현장 안전 이끄는 ‘우수 시공관리책임자’ 선발

한국전력은 협력사의 자율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안전 리더를 직접 선발·육성하는 ‘우수 시공관리책임자(KEPCO Safety Eagles)’ 제도를 시행해 중대재해 근절 및 안전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독수리처럼 날카로운 관찰력과 탁월한 시야, 리더십을 가져 안전을 최우선하는 책임자를 의미한다. 지난주 한전은 전기공사협회 중앙회에서 우수 시공관리책임자 발대식을

열고 전국 6개 지역본부의 추천과 본사 심의를 거쳐 선발된 총 18명의 시공관리책임자에게 감사패와 배지를 수여했다.

이들은 오는 12월까지 약 7개월 동안 현장 안전리더로서 △안전리더십 발휘 △현장 위험요인 개선 △안전문화 확산 △현장 안전관리 컨설팅 △안전 멘토링 등 5대 핵심 임무를 수행한다.

향후 한전은 우수 시공관리책임자와 협력사

에 △KEPCO 인증 △안전지도서 1회 감면 △안전 전문교육 우선권 △우수 활동자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제도가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개선 활동으로 자리 잡아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협력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한전은 기대하고 있다. 홍승현 기자

광주경총, 매주 수요일 ‘회원기업 돕는 날’ 호응

807개 회원사 현장 중심 관리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지난 3월부터 운영한 매주 수요일 회원 기업 돕는 날 행사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광주경총은 회원사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맞춤형 무료 컨설팅 및 뿌리산업 등 고용노동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회원 기업 돕는 날’을 통해 △공모사업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MZ세대 소통 및 동료 간 갈등 요인 해결 방안 △사내 행사 등 진행 요령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친절 서비스 및 기업 이미지 관리 △ESG 경영 등을 지원했다.

광주경총은 앞으로도 회원사 807곳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 지원 사업을 확대해 회원 기업이 성장하고 개선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그동안 회원사들은 트러블 2기 행정부 관세전쟁과 계급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금융조찬 포럼과 회원기업 돕는 날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성과 창출 노력에 보람이 있었다”며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탄생함에 따라 다시 한번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주 수요일 회원 기업 돕는 날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광주경총 회원 기업은 대외협력본부(062-654-3425)로 문의하면 된다. 이연수 기자